



##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

박 경 란\*\*

###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Educational Status of the Deaf-blind Students in Japan

Park, Kyungran\*\*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ind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support for deaf-blind students in Korea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educational status of deaf-blind students in Japan. **[Method]** To this end, policy data on the deaf-blind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ere analyzed. Laws related to special support education and learning guidelines for special support schools were also analyzed. **[Results]** First, in Japan, no legal definition of 'deaf-blind'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term 'deaf-blind (Mourou)' was being used. Among the 14,000 deaf-blind people in Japan, 555 are estimated to be school-aged. The percentages of 'low vision and hard of hearing impaired' or 'blind and hard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deaf-blind' students, and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had other disabilities apart from deaf-blindness. Second, Japan finds disabilities through 'infant and child health screening' and 'school enrollment health screening'. Moreover, Japan emphasizes a connected support system through cooperation in related fields, such as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When a disability is found through screening, an 'individual support plan' is established to counsel and support the disabled person. If the person is of school age, this plan is converted to an 'individual education support plan' and support services are provided by special support schools. Third, in Japan, the curriculum for deaf-blind students requires additional 'self-reliance activities' along with an education equivalent to the general curriculum. In particular, considerations for the selection and use of communicative means are specified in the 'communication' part of the 'self-reliance activities'. To foster the expertise of the teachers of deaf-blind students, the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 offers an annual workshop, and the 'National Research Society for Deaf-blind Educ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share cases of deaf-blind education practic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were found regarding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of deaf-blind students, educational placement,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development of teacher expertise.

**Key Words:** Deaf-blind, Deaf-blind students, Education for the deaf-blind, Japan

\* 이 연구는 2021년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부교수(kyoungghan@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Sehan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청각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과 유럽은 ‘농맹(deaf-blind)’을 일본은 ‘맹농(盲ろう)’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맹’, ‘시청각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을 혼재해서 사용해오다 201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면서 공식 문서상에서는 ‘시청각장애’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정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그 용어 사용은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각과 청각을 함께 수반한 장애인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청각중복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조례에서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일관된 정의조차 규정되지 않은 한편, 미국은 「헬렌켈러국립센터법(Helen Keller National Center Act)」과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서, 독일은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에서 농맹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는 “농맹은 농아동 또는 맹아동을 위한 기존 특수교육 프로그램 제공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심각한 의사소통 및 다른 발달적·교육적 요구를 지닌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함께 수반하는 장애를 말한다.”로 정의하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다른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에서도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그들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근거한 교육적 지원에 한계를 지닌다.

세계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출현율은 10,000명당 1.8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서해정 외, 2017; WFDB, 2018). 미국이 70,000명(<https://www.helenkeller.org/hknc>), 독일이 15,000명(<http://www.sinnesbehindert.at/taubblindheit/>), 그리고 일본이 14,000명(全国盲ろう者協会, 2013) 정도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0,000명(서해정 외, 2017)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학령기 시청각장애학생 출현율은 미국의 경우 9,904명(NCDB, 2020), 독일이 1,300명(<https://nachrichten.idw-online.de/>), 일본은 555명(全国盲ろう者協会, 2013)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최대로 파악된 시청각장애학생 인구가 31명으로, 이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조사 결과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파악된 학령기 시청각장애학생 인구 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시청각장애학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립농맹교육센터(National Center on Deaf-Blindness)’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농맹교육 발전과 교육지원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순희, 2007). 이 센터는 농맹학생 교육 연구, 농맹 정보 제공, 가족지원, 주정부 및 교육 현장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51개 주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연계하여 농맹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농맹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특수교육기관으로 하노버 키르히로데(Hannover-Kirchrode) 학교가 설립되어 독일 내 농맹교육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특수교육기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국립특수교육원에 해당하는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에서 맹농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연수회를 실시하고, 맹농교육 실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맹농학생 대상 개별 지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가능한 특수교육 기관으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 교육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장애에 청각장애가 더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청각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시각장애에 청각장애를 곁들이 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박중휘, 정지훈, 2008). 시청각장애인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이동, 정보접근 측면에서 최소한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는 다양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박순희, 2007; 후쿠시마 사토시, 2007).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정지훈, 2007), 그들이 지닌 장애 특성이나 개별적 다양성에 근거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복잡성은 최근에 수행된 최성규(2021)의 연구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초임교사 시절 시청각장애학생 지도 기억을 환기하며 학생과의 단절된 소통의 벽 사이에서의 고뇌를 잘 드러내고 있다. 향후 시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장애 특성에 근거한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장애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교육배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사 전문성 함양,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다른 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교육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은(2021)은 독일 농맹교육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사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독일과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차이로 인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체계를 갖는 아시아권의 나라로서 일본의 시청각장애학생 현황과 교육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청각장애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교육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정의 및 인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교육배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사 전문성 함양 등의 교육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 3. 연구 방법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첫째,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3년 전국맹농인협회에서 실시한 『맹농인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 그리고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2018)에서 전국 1,025개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지원학교 맹농아동 및 학생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부과학성 특별지원교육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21), 특별지원학교 중복장애학급 재적 학생 수 외 맹농학생에 대한 현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 자료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시청각장애교육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특수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서 시청각장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부과학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각장애교육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발간 시청각장애 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봄으로써 시청각장애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시청각장애교육 현장 실천 사례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을 확인하고자 ‘전국맹농교육연구회’, ‘전국맹농인협회’, ‘맹농인친우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협회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용을 검토·분석하였다. 그 밖에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특성 파악을 위한 자료를 보완하고자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CiNii와 국립국회도서관, Google Scholar 등의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 ‘맹농’, ‘맹농학생’, ‘맹농교육’, ‘시청각장애’ 등으로 검색하여 논문 원문을 입수·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맹농교육 담당자 및 전국맹농인협회의 직원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실태

## 1.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정의 및 인구 현황

일본에서 시청각장애 교육은 1949년 야마나시현립맹아학교(山梨県立盲啞学校)에서 2명의 맹농학생을 발견한 것에서 출발한다. 당시 맹학생과 농학생 실태 조사 과정에서 맹농학생 2명이 파악되었고, 이후 1952년 ‘전국맹농교육연구회(全国盲ろう教育研究会)’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맹농교육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小野 외, 2016).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맹농교육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농’은 아직까지 「신체장애인복지법」이나 「학교교육법」에서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맹농인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에서 보이는 정도와 들리는 정도에 따라 ‘맹농’을 (1)전맹농 (2)약시농 (3)전맹난청 (4)약시난청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全国盲ろう者協会, 2008), ‘맹농’이 시청각장애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학교교육법」 72조에 따르면 특별지원학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및 병약인(건강장애인)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학습 및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별지원학교 대상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 정도가 제시되어 있으며<표 1>, 이 법령에 제시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자를 맹농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 The degree of visual impairment and hearing impairment stipulated in the 「School Education Law」

Type of disabilities	Definition
The visually-impaired	Among those whose eyesight is less than 0.3 or with severe visual function impairment other than vision, a person who is unable to understand or have extreme difficulty recognizing ordinary characters, figures, etc. even if a magnifying glass is used
The hearing-impaired	Among those with a hearing level of approximately 60dB or higher in both ears, a person who is unable to understand or have extreme difficulty understanding ordinary speech sounds even if a hearing aid, etc. is used

학령기 맹농학생 출현율을 살펴보면, 맹농인 전수 조사에서(全国盲ろう者協会, 2013) 파악된 약 14,000명의 맹농인 중 학령기로 추정할 수 있는 20대 이하의 맹농인은 맹농인 전체 인구의 약 4%(555명) 정도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학령기 맹농학생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학생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다. 2018년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 1,025개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맹농학생 실태 조사에 따르면(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8),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아동 및 학생은 315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국맹농

인협회에서 실시한 20세 이하의 맹농인이 555명인데 비해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인이 315명으로 파악된 것은 많은 맹농학생이 일반학교 특별지원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맹농학생 실태 조사(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8)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의 맹농학생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5명 중 남학생이 170명, 여학생이 142명으로(무응답 3명) 남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표 2>, 유치원 7명,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48명, 전공과 10명,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상담으로 특별지원학교에 내방한 학생이 31명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Number of deaf-blind students by school level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ajoring course	Educational consultation	Total
7	141	78	48	10	31	315

다음으로 장애 상태와 장애 원인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표 3>, 시각장애는 약시가 가장 많고(185명), 다음으로 전맹(87명), 그리고 시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34명이나 있었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난청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41명, 그리고 농이 28명으로 나타났다. 맹농의 원인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와 ‘차지증후군’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모두 장애 원인을 ‘불명’으로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Table 3> Number of deaf-blind students by status and cause of disabilities

Visual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			
Status of disability		Cause of disability		Status of disability		Cause of disability	
Blind	87	Prematurity	39	Deaf	28	Prematurity	27
Low vision	185	CHARGE syndrome	37	Hard of hearing impaired	237	CHARGE syndrome	37
unmeasurable	34	Central disorder	7	unmeasurable	41	Central disorder	4
no response	9	Down syndrome	5	no response	9	Down syndrome	5
		Usher syndrome	4			Usher syndrome	3
		CMV	4			CMV	5
		Congenital rubella syndrome	3			Congenital rubella syndrome	3
		Accident	3			Accident	3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urrent educational status of the deaf-blind students in 105 Japan**

	Meningitis	2		Meningitis	-
	Other disease	93		Other disease	45
	No determination of etiology	98		No determination of etiology	151

맹농 장애 유형별 학생 수는<표 4> 앞서 기술된 장애 상태에서 예측해 볼 수 있듯이 약시난청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맹난청 61명, 약시농 17명, 전맹농 11명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보다 잔존 시력과 청력이 남아 있는 맹농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Number of deaf-blind students by type**

Blind-Deaf	Blind-Hard of hearing impaired	Low vision-Deaf	Low vision-Hard of hearing impaired	Unmeasurable	No response	Total
11	61	17	157	61	8	315

시각 및 청각 장애 외에 동반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1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표 5>, 구체적인 동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만 동반한 경우가 56명, 지적장애와 함께 지체장애와 병약인 경우가 40명, 지체장애만 동반한 경우가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Number of deaf-blind students by accompanying disability type**

Intellectual+ Physical	Intellectual	Intellectual+ Physical+Health	Physical	Intellectual+ Physical+ Others	Intellectual Others	Others	Total
117	56	40	32	8	7	11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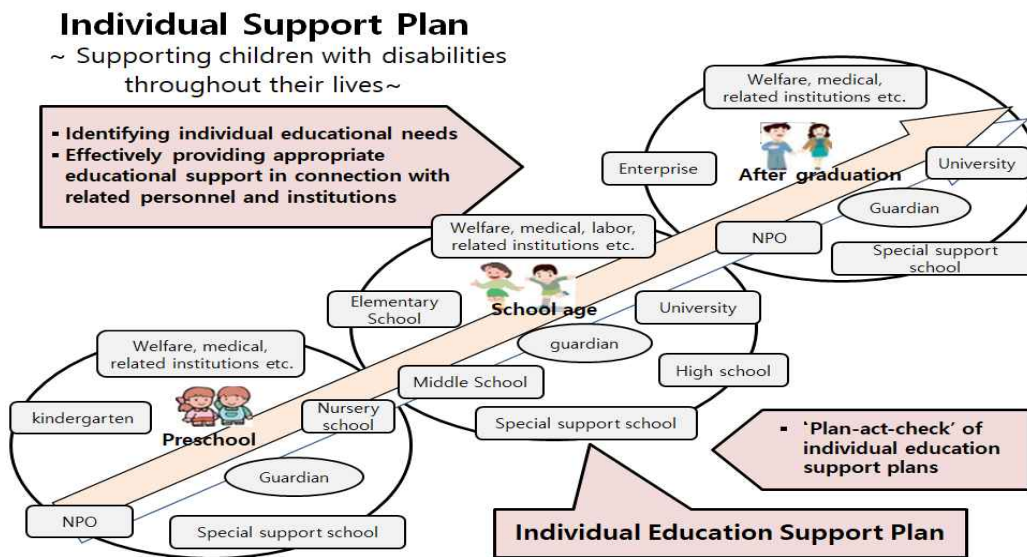
**2.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교육배치 실태**

**1) 시청각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상담·지원 체계**

일본은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취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취학 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文部科学省, 2008). 검진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진료과별 전문의에 의해 정밀 검사가 실시되며,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학

생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장애아동의 상담 지원을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원 지역, 시정촌 등의 의료,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등 관련 행정 기관 및 관련 인사의 횡단 연계 체계를 강조한다(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21). 도도부현에서 ‘광역 특별지원연계협의회’를 구축하여 상담·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조정 및 연계 시책을 검토하며, 상담·지원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영유아기에서 학교 졸업 이후까지 일관된 지원을 위한 ‘개별지원계획’ 모델을 수립한다. 지원 지역에서는 ‘지원지역 특별지원연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밀착형 상담·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상담지원팀’을 설치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인사와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상담회의 및 사례 검토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진단·평가를 통해 발견된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 내 일관된 상담·지원을 위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영유아기에서 학교 졸업 이후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한다<그림 1>. ‘개별지원계획’에는 장애아동의 요구, 지원목표 및 지원내용,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 분담, 지원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다. ‘개별지원계획’을 학교 및 교육위원회 등의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립할 경우에는 ‘개별교육지원계획’이라 칭한다. 즉 ‘개별교육지원계획’은 ‘개별지원계획’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2006).

<Figure 1> ‘Individual Support Plan’ and ‘Individual Education Support Plan’

‘개별교육지원계획’은 취학 전 의료, 보건, 복지 등의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수립되며, 이 때 관련기관, 관계자, 보호자 등과 연계·협력하여 취학 전 작성된 개별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한 목표와 내용을 설정한다. 취학 중 ‘개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은 아동 개개인의 의료, 보건,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구에 대응하고, 다양한 관계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지역생활 등 학교 이외의 생활 전반을 포함하여 목표나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가 중심이 되어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全国特殊学校長会, 2006).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지원교육 추진을 위해 각 학교 및 교육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상담소, 보건센터, 헬로우워크 등 복지, 의료, 보건, 노동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文部科学省, 2007). 맹농교육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시각 및 청각 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찰을 통해 맹농학생의 시력과 청력 정도, 교육적 요구 등을 파악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한다. 맹농학생의 시력 및 청력 상태 파악을 위한 관찰 포인트는 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해 제작된 ‘맹농아동의 성장과 학습 위한 가이드북’에서 안내하고 있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21).

## 2) 시청각장애학생 교육배치 실태

일본에서 장애학생의 교육배치 결정은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교육적 요구와 필요한 지원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 상태 및 필요한 지원 내용, 그리고 교육학·의학·심리학 등의 전문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교육배치 장면에 있어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중복장애 특별지원학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2019) 의무교육 단계의 특별지원교육 대상은 장애 유형별로 배치 환경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표 6>. 맹농을 포함한 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중복장애 교육 가능 학교 중 취학상담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취학처가 결정된다. 대부분 보호자의 희망이 존중되지만, 지역에 따라 보호자의 의견 반영 정도는 달라진다.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중복장애교육연구부 카토(加藤)에 의하면(2021. 7. 15), 맹농학생의 취학처 결정 시는 학생의 여러 가지 당면 과제 중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교육적 요구를 정리한 후 취학 시점에서 학생의 우선 과제를 지도할 수 있는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가 선정된다고 한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지원학급에 배치되거나 통급에 의한 지도 형태로 교육이 제공된다. 맹농아동을 포함한 중복장애아동의 취학처 결정에 관한 이러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애아동 교육지원 지침』에도 제시되어 있다(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21).

<Table 6> Placement of students for special support education

	Target of special support education
Special support school	visual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 intellectu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health disorder
Special support class	intellectual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health disorder, low vision, hard of hearing impaired, language disorder, autism, emotional disorder
Teaching through class commuting	language disorder, autism, emotional disorder, low vision, hard of hearing impaired, learning disabilities, ADHD, physical disability, health disorder

맹농학생의 교육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1,025개 특별지원학교 중 166개 학교에 맹농학생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8). 일본에서는 특수교육기관으로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그리고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별도로 제공받는 형태인 통급에 의한 지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학교 배치 맹농학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지원학교 재학 맹농학생 현황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맹농학생이 배치된 특별지원학교 중 지적+지체장애 중복장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학생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표 7>. 이어서 시각장애학교와 지체장애학교가 각각 54명으로 많고, 청각장애학교가 33명, 지적장애학교가 3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맹농학생이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7> Number of deaf-blind students by special support schools

Schools for the visual impaired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Schools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Schools for physical disabilities	Schools for intellectual & physical disabilities	Schools for all kind of disabilities	Other schools
54 (28 schools)	33 (20 schools)	39 (27 schools)	54 (26 schools)	56 (26 schools)	28 (10 schools)	42 (24 schools)

### 3.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지원 실태

#### 1) 시청각장애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일본에서는 맹농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면 특별지원학교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문부과학대신이 고지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교육과정의 기준이 된다. 교육과정은 각 교과,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 교육과정

에 준하는 교육과 함께 장애에 따른 학습과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자립활동’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특별지원학교 교육요령·학습지도요령 해설』(2018) 총론에는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교과, 도덕, 외국어활동, 특별활동의 지도 목표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이를 대신하여 ‘자립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근거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31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법령에서는 특별지원학교 초등부, 중등부 또는 고등부에서 복수 유형의 장애를 동반한 아동 혹은 학생을 교육할 경우 특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맹농을 중복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맹농학생에 대한 지도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특별지원학교 교육요령·학습지도요령 해설』 ‘자립활동’ 편(문부과학성, 2018) ‘의사소통’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립활동’은 여섯 가지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서 맹농학생은 장애 상태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맹농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 및 청각 양쪽에 장애가 있는 유아학생의 경우 잔존 시각과 청각 활용, 촉각을 활용한 의사소통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촉각을 활용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몸짓 사인을 만져거나, 수어 및 지문자를 만져서 이해하는 촉수어, 촉각지문자, 지점자 등이 있으나, 장애 상태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8> Areas of self-reliance activities presented in the educational guidelines for special support schools**

Area	Contents of guidance
Health maintenance	- Forming rhythm of life and lifestyle, Understanding disease conditions and managing life,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the body parts and protection,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creating better living conditions,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al stability	- Stabilizing emotions, understanding situations and responding to changes, willingness to improve and overcome difficulties in learning and living caused by disability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Basi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derstanding other people's intentions and emotions, Self-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behaviors, basis of participating in groups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 Using the remaining(retaining) senses,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sens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using sensory aids or alternative means, identifying the surrounding situation and act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 by utilizing the senses comprehensively, forming concepts that work as a clue to cognition or behavior
Physical movement	- Basic functions of posture, exercise, and movement, maintaining and exercising posture, using movement aids, physical movement ability necessary for daily life
Communication	- Basic communication skills, accepting and expressing language, forming and utilizing language, <b>selecting and utilizing communicative means</b> , communication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일본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개별교육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 및 자립활동 등의 ‘개별지도계획’에 따라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관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교육지원계획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계획인 개별지도계획과의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맹농학생에 대한 자립활동 개별지도계획의 예시는 <표 9>와 같다.

**<Table 9> Examples of individual guidance plans for the deaf-blind’s self-reliance activities**

School course / Grade	Middle school / 3 <sup>rd</sup> grade
Disability type · degree and status	<b>Deaf-blind person who is mentally challenged</b>
Case overview	Instructing the students to interact with teachers using gestures
<b>① Collecting information on disability status, degree of development and experience, interests/concerns, strengths appearing in learning and life, etc.</b>	

- A congenital deaf-blind student who is mentally challenged
- The cause of visual impairment is unknown and immeasurable. According to behavioral observation, the student feels dazzled when going out on a sunny day, the student has a sense of light. However, the student does not try to have a closer look at a specific object.

~ omitted below ~

<b>②-1. The stage of organizing the collected information(①) according to the area of self-reliance activities</b>					
Health maintenance	Psychological stability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derstanding environment	Physical movement	Communication
▪ good health and stable condition	▪ gets angry and shows rejection when something happens suddenly or things don't go as the student expected	▪ Accepts demands of the teacher whom the student always encounter	▪ rarely accepts visual or auditory information	▪ Enjoys physical games in a limited space	▪ uses gestures and physical cues, basic communication is possible

<p>②-2. The stage of organizing the collected information(①) according to difficulties in learning and living or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situation so f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range of acceptable information is limited in that only directly tangible information can be accepted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also considerably limited(Understanding environment)</li> </ul>
<p>②-3. The stage of organizing the collected information(①) from the perspective of ○○years from no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guardian wants the student to live by predicting the overall situation(Psychological stability)</li> </ul>
<p>③ The stage of extracting tasks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by organizing ②-1, ②-2, ②-3 based on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s the surrounding situation and the flow of school life, and predicting routine(Understand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stability)</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The rest is omitted ~</p>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18). Special Support School Educational Instructions · Study Guide Instructions Explanation, Independent activities(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그 밖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중복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중복장애학생의 실태 파악이나 지도계획 작성 및 평가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사 및 특별지원학교 간 협력을 통해 지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의, 간호사, 의학요법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심리학 및 교육학 전문가 등의 연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2) 시청각장애학생 교사 전문성 함양 및 전문인력 배치

일본에서는 장애 영역별로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맹농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사 양성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 맹농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과 연수회를 매년 실시하고, 맹농교육 실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맹농학생 대상 개별 지도 사례를 공유하면서 맹농교육을 실천해 나간다. 또한 ‘전국맹농교육연구회’가 구성되어 맹농교육에 종사하는 현장 교원 및 연구자가 맹농교육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맹농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개최된 제19회 전국맹농교육연구회(<http://www.re-deafblind.net/page054.html>)에서는 문부과학성 수탁 사업인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실천 연구 충실 사업」에 대한 개요가 발표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맹농학생 담당 경험 교원 네트워크 구축, 맹농학생 지도사례 축적, 맹농학생을 위한 교재·지도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회 실시, 교원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 교원 지도력 향상 실습 기관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맹농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사양성 과정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맹농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맹농교육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맹농학생의 낮은 출현 빈도 및 교육적 특수성, 그리고 이동이 잦은 일본의 교사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설정

하고 있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9).

첫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가능한 한 해당 현과 연계하여 연수를 구성한다.

둘째,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담당하는 맹농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수업 운영에서 ‘즉각적’으로 연수 효과를 활용한다.

셋째,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통해 ‘학급 및 학교 내 보급·전달이 용이한’ 연수내용과 방법을 고려한다.

넷째, 학교를 벗어나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일수’로 실시한다.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맹농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2009)에 따르면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맹농 출현 빈도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낮아 지역 또는 현 단위에서 맹농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거점 기관이 중심이 되어 현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연수 결과의 즉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배경에는 일본 특별지원학교의 경우 2년 단위로 담임 교사가 바뀌거나 다른 학교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맹농교육의 전문성 계승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교사가 맹농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맹농학생을 맡게 되기 때문에 연수의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해당 학교에 전파하기 용이하도록 연수내용과 방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의 최소화와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교외 연수 일수를 최소한으로 구성한 것이다. 연수는 일반적으로 연 1회, 회당 2명으로 진행되며, <표 10>에서는 『맹농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2009)에 수록된 T현 맹농교육 담당교사 연수 모델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수 모델에 따라 맹농교육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전국맹농교육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맹농학생 지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2021년도는 유튜브를 통해 지도 사례를 공개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e74nrqJsDzg>).

<Table 10> A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hose in charge of educating deaf-blind students

Stages		Contents of training
Pre-learning (2~3 weeks in advance)	Studying textbooks independent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sic principles when interacting with the visually and hearing-impaired</li> <li>- Developmental changes in communication methods(receiving, sending)</li> <li>- Overview of eye structure and visual mechanism</li> <li>- Overview of ear structure and visual mechanism</li> <li>- The practice of instructing the student with both ‘visual and hearing-impairment’</li> </ul>

	Organizing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ividual and group activities for 15 minutes, respectively. Videotaping for 30 minutes.</li> <li>- Reorganizing information on the student in charge's vision and hearing with the consent and cooperation of the guardian.</li> <li>- Organizing the student in charge's communicative method based on the table of developmental changes(receiving, sending).</li> </ul>
	Organizing assign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teacher organizes the student in charge'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in the daily lives in 1-2 pages and sends it to the instructor by email in advance</li> </ul>
School visit training (for 2 days)	Day 1	Day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ving an orientation and checking pre-learning</li> <li>- Introducing the deaf-blind students and schools in charge</li> <li>- Sharing mock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af-blind</li> <li>- Watching and discussing the video of &lt;Case 1&gt;</li> <li>- Discussing future support directions for Case 1 based on pre-learned materia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tching and discussing the video of &lt;Case 2&gt;</li> <li>- Discussing future support directions for Case 2 based on pre-learned materials</li> <li>- The instructor's lecture and discussion based on specific tasks of the student &amp; teacher's questions</li> <li>- Explanation of post-learning and guidance on further instruction</li> </ul>
Post-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port on the trainee's education practice(1-2 months later)</li> <li>- Supporting trainee and delivery/supply in school via further instruction: educational practice after the first semester</li> </ul>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nection between schools and prefecture, training others teachers by trainees</li> </ul>	

일본에서 교사 배치는 「공립의무교육 제학교의 학급편성 및 교직원 정수 기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맹농학생의 경우 중복장애(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복+α)로 간주되어 특별지원학교 중 중복장애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학급은 교사당 학생 수가 3명 정도로 제한된다(加藤, 2021. 07.15). 『특별지원학교 맹농아동 및 학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8), 교육현장에서는 맹농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고정되어 있거나, 특정 교사가 여러 명 지정되어 지정된 교사가 맹농학생을 지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표 11>. 이 조사에 따르면 맹농학생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맹농교육에 관한 연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고, 연수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강사가 방문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전국 단위 및 도도부현 수준에서의 연수 필요성도 개진하였다. 희망하는 연수내용으로는 대상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및 학생의 수행과제를 함께 검토하는 현장 실천형 연수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교재·교구·보조기기 등의 연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연수, 맹농학생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및 시설 견학, 전문가 강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eachers in charge of the deaf-blind students

One teacher is a designated teacher in charge	Only a few designated teachers are in charge	Both the designated teacher and other teachers instruct students (according to the subjects )	Others	No response
41	58	191	16	9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에 따라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는 교직원, 보호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맹농학생 양육 및 지도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21). 이 지침서에는 ‘맹농의 개요’, ‘시각 및 청각 장애 상태 파악’, ‘맹농아동의 주된 어려움’, ‘맹농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및 상호작용 방법’, ‘맹농아동 지도 시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특수교사 교사양성 체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 「교육직원면허법」에 의하면 특수교사 자격은 교사자격증에 ‘특별지원교육영역(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또는 병약)’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교의 경우 해당 장애 유형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특수교사 자격증 표시의 예를 들면, 학부에서 시각장애를 전공한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영역으로 지정된 특별지원학교 1종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된다. 이러한 교사양성 체제로 인해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장애 영역별 전공 교사를 통해 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더불어 「학교교육법」에서는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가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맹농학생은 주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교사 외 맹농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일본에서는 맹농인 통역·개조원을 양성하여 파견하고 있다. 통역·개조원은 맹농인에 대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지원과 함께 맹농인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동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생노동성에서 통역·개조원 양성을 위한 시간 수, 이수 교과목,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지도내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박경란, 2020). 전국맹농인협회의 맹농인 통역·개조원 파견 사업·양성연수 사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http://www.jdba.or.jp/index.html>), 통역·개조원 수는 2014년 5,388명에서 2018년 6,298명으로 증가되었고, 이용자 수도 2014년 1,020명에서 2018년 1,137명으로 증가됨으로써 매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학령기 학생에 대한 배치 사례는 드물다. 츠클바대학(筑波大学) 부속 시각특별지원학교 교장인 호시(星)에 의하면(2021. 5. 27), 지금까지 학령기 맹농 학생에게 통역·개조원이 배치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며, 통역·개조원이 배치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충분한 언어능력이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 Ⅲ.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

이하에서는 일본의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실태를 요약정리하고,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정의 및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는 아직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시청각장애는 ‘맹농(盲聾)’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맹농인은 약 1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20세 이하의 맹농인은 555명으로 나타났고,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맹농아동 및 학생은 315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맹농학생의 장애 유형으로는 ‘약시난청’이 가장 많고, ‘전맹난청’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시청각장애학생의 80% 이상이 시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지적+지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지적+지체+건강’ 장애를 동반한 학생 순으로 많았다. 일본은 법적으로 시청각장애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보이는 정도와 들리는 정도에 따라 시청각장애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장애 유형보다는 개개인이 갖는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학령기 맹농학생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이유는 맹농이 의무교육 단계 특별지원교육 대상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서 맹농학생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학생 인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시청각장애’를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경근, 김원호, 2020). 일본의 시청각장애학생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맹농’보다는 ‘약시난청’이나 ‘전맹난청’ 학생의 비율이 높고, 시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동반한 학생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교육배치 실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취학 시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를 발견하고, 이후 의료,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을 통한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생애 주기별 분절 없는 지원을 제공한다(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6). 특히 개별 학생의 상담 지원을 위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령기 동안은 ‘개별교육지원계획’으로 전환되어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가 중심이 되어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全国特殊学校長会,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관련 부처 간 상호 통합되지 못한 채 각 부처별로 분절되거나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이명희 외, 2013;

한연주, 김용희, 2018), 영유아기의 지원 서비스와 학령기에 수립되는 개별화교육계획과도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 발견 후 지원 연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상담을 진행하여 복지, 재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시청각장애 담당 교사가 관찰을 통해 시각 및 청각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교육배치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청각장애학생의 배치 결정 시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당 학생의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지원학교에 배치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특별지원학교 재학 맹농학생 현황 조사 결과, 맹농학생은 지적+지체 장애 중복 특별지원학교에 가장 많았고, 이어 시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지적장애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청각장애학생이 다양한 장애 영역별 학교에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향후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배치 장면별 시청각장애학생을 발굴하는 일부터 선결되어야 하며, 배치 결정에 있어서는 ‘시청각장애 진단평가팀’이 중심이 되어 학생의 시력 및 청력 손실 정도, 학습 능력,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사 전문성 함양 등 교육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 함께 ‘자립활동’을 추가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맹농학생의 경우에도 기본 가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심한 맹농학생의 경우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교과, 외국어활동 혹은 종합적 학습시간을 대신하여 ‘자립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맹농학생의 경우 ‘자립활동’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장애 상태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본 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애 발견 이후 수립된 ‘개별지원계획’과 ‘개별교육지원계획’ 그리고 교과 및 자립활동 등의 ‘개별지도계획’ 간 연계성을 갖는 점과 학습지도요령에서 중복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연계 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지침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향후 시청각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근거한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 ‘시각 및 청각 손실 정도와 발달장애 여부’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시청각장애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시청각장애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 등의 교육지원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형태의 맹농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사양성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 맹농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매년 실시하고, ‘전국맹농교육연구회’가 조성되어 맹농교육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맹농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맹농교육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및 현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맹농학생의 낮은 출현 빈도 및 교육적 특수성, 그리고 교사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시청각장애학생의 낮은 출현율 및 교사의 잦은 이동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유사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학생 담당 교사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시청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시청각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례 중심 연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청각장애학생은 장애 상태 및 정도, 부가장애 여부, 장애 발생 시기 등에 따라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보다는 개별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Miles & Riggio, 1999; Nafstad & Rodbroe, 1999)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청각장애학생 담당 교사 연구회’ 등을 발족하여 개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청각장애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교육 영역에서 교사 전문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교사, 그리고 시청각장애 관련 전문인력 등이 협력하여 시청각장애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kira, T, Hideharu U, Satoshi, H., & Hiroshi, Y. (2001).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disabled Persons with the deaf-blind.  
[寺島彰, 植村英晴, 福島智, 山縣浩 (2001). 盲ろう者に対する障害者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
- An, T. H., Lee, T. H., Park, K. R., Kang, J. K. (2020). A study on improving employment possibilities and employment plans for the multipl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plans for the deaf-blind.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안태희, 이태훈, 박경란, 강종구 (2020). 중복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고용방안 연구: 시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Choi, S. K. (2021). A study on the life history through memory recall of a special school teacher on the teaching of deafblindness student.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2*(1), 25-44.  
[최성규 (2021). 시청각장애학생의 지도에 관한 초임 특수교사의 기억 환기를 통한 생애사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1), 25-44.]
- Gablenz, P.(2015). Prävalenz von Schwerhörigkeit in Nord- und Südddeutschland. *HNO 63*(8), 663-670.

- Go, E. (2021). Implications of Germany's deaf-blind education policy for Korea: Communication is life, and life is communication.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2*(2), 1-21.  
[고은 (2021). 독일 농맹교육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의사소통은 삶이며, 삶은 의사소통이다-.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2**(2), 1-21.]
- Han, K. G., Kim, W. H. (2020).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tudents with multiple disabilities and support plans by type.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한경근, 김원호 (2020). 중도중복장애 학생 현황 분석 및 유형별 지원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Happy Life Welfare Research Society of Gyeonggi-do (200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for the deaf-blind in Gyeonggi-do. Korea Social Welfare Policy Institute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2000).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나사렛대학교, 충남.]
- Hellen Keller Act (2016). *Hellen Keller Act*.
- Hellen Keller National Center for Deaf-Blind Youths & Adults (2016). *About the deaf-blind services* retrieved <https://www.helenkeller.org/hknc>.
- Hukushima, S. (2007). Current status of the deaf-blind in Japan. International seminar resources on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deaf-blind(pp. 11-23).  
[후쿠시마 사토시 (2007). 일본의 시청각장애인(시각청각 중복장애인)의 현황.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 자료집(pp. 11-23). ]
- Japan Deafblind Association (2008). Interpreting-Caregiving for the deaf-blind.  
[全国盲ろう者協会 (2008). **盲ろう者への通訳介助**. 読書工房.]
- Japan Deafblind Association (2013). Report on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af-blind.  
[全国盲ろう者協会 (2013). **盲ろう者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 Jeju Welfare Center for the Deaf (2019). A report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needs of deaf-blind people in Jeju area. Korea Social Welfare Policy Institute  
[제주도 농아복지관 (2019). 2019 제주지역 시청각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Jeong, J. H. (2007). The social reality and cases of the deaf-blind in Korea. International seminar resources on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deaf-blind. (pp. 73-82).  
[정지훈 (2007). 한국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현실과 사례.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 세미나 자료집**(pp. 73-82). 나사렛대학교, 충남.]
- Jo, W. S., Kim, K. M. (2018). Studies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afblind people: navigating the environment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9*, 57-80.  
[조원석, 김경미 (2018).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 이동, 의사소통, 정보·통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9**, 57-80.]
- Joo, H. S., Lee, H. G., Ryu, H. (2015).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trend in studies related to the deaf-blind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3), 231-253.  
[주혜선, 이혜균, 류현(2015). 국제 학술지 분석을 통한 맹농인 관련 연구 동향 조사. **시각장애연구**,

- 31(3), 231-253.]
- Kyle J. & Barnett S. (2012). Deafblind world. The National Lottery.
- Lee, M. H., Kim, E. J., Kim, S. A., Back, Y. S., Choi, M. S., Lee, J. H. (2013). A study of current realities and needs on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3), 163-196.
- [이명희, 김은주, 김성애, 백유순, 최민숙, 이정현 (2013). 부모가 인식한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 실태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 13(3), 163-196.]
- Lim, A. S., Lee, H. G., Park, J. H., Jeong, J. H. (2012). Understanding and guidance for the deaf-blind. Haedong.
- [임안수, 이해균, 박중휘, 정지훈 (2012.) **맹농인의 이해와 지도**. 도서출판 해동.]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7). About the promotion of special support education(notice).
- [文部科学省 (2007). 特別支援教育の推進について (通知).]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seling support syste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draft).
- [文部科学省 (2008). 障害のある子どものための地域における相談支援体制整備ガイドライン (試案).]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3). Enrichment of school procedur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onsistent support from an early age.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13). 障害のある子供の就学手続と早期からの一貫した支援の充実.]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8a). Special Support School Educational Instructions · Study Guide Instructions Explanation, Independent activities(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 [文部科学省 (2018a). 特別支援学校教育要領 · 学習指導要領解説, 自立活動編 (幼稚園 · 小学部 · 中学部).]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8b). Special Support School Educational Instructions · Study Guide Instructions Explanation, General rules(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 [文部科学省 (2018b). 特別支援学校教育要領 · 学習指導要領解説, 総則 (幼稚園 · 小学部 · 中学部).]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9). Regarding the situation of special support education in Japan.
- [文部科学省 (2019). 日本の特別支援教育の状況について. 新しい時代の特別支援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1a). Guidelines for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hance learning in 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each child.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21a). 障害のある子供の教育支援の手引き ~子供たち一人一人の教育的ニーズを踏まえた学びの充実に向けて~.]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1b). Special support education materials.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特別支援教育課 (2021b). 特別支援教育資料.]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3). About the curriculum for training interpreters-caregivers for the deaf-blind.
- [厚生労働省 (2013). 盲ろう者向け通訳介助員の養成カリキュラム等について.]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a). Dispatch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other support pla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ies in hearing, language, voice, and communication.
- [厚生労働省 (2015a). 手話通訳等を行う者の派遣その他の聴覚, 言語機能, 音声機能その他の障害のため意思疎通を図ることに支障がある障害者等に対する支援の在り方について.]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b). Regarding communication support, etc. under the Comprehensive Support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厚生労働省 (2015b). 障害者総合支援法における意思疎通支援等について.]
- National Center on Deaf-Blindness. (2020). 2019 National deaf-blind child count. <https://www.nationaldb.org/products/national-child-count/report-201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 Report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discrimination in education rights for deaf-blind children.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 기획조사 결과 보고.]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 (2006). Practical research on the formulation of 「Individual education support plans」.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6). 「個別的教育支援計画」の策定に関する実際的研究.]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 (2009).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deaf-blind education teachers.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09). 盲ろう教育における教員の専門性向上のための研究.]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 (2018). A study on the situation of deaf-blind children & students attending special support schools.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18). 特別支援学校における盲ろう幼児児童生徒の実態調査結果について.]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Needs Education (2021). For the upbringing and educating of children who have both hearing and visual impairments. ~For School staffs, guardians, related persons~.
-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 (2021). 視覚と聴覚の両方に障害のある盲ろうの子どもたちの育ちと学びのために ~教職員, 保護者, 関係するみなさまへ~.]
- Park, K. R. (2006). Examining the current plan of special support education 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Japa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2), 197-218.
- [박경란 (2006). 일본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197-218.]
- Park, K. R. (2020). Analysis on current state and status of support for the deaf-blind in Japan.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2), 41-64.
- [박경란 (2020).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41-64.]
- Park, K. R., Park, M. J (2015). Study on local practical cases of supports for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3), 109-130.
- [박경란, 박미정 (2015).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지역 실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

- 론과 실천, 16(3), 109-130.]
- Park, K. R., Park, M. J. (2018).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upport request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3), 1-22.
- [박경란, 박미정 (201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지원 요구 조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9(3), 1-22.]
- Park, S. H. (2007).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3*(1), 1-22.
- [박순희 (2007). 농맹인 교육과 재활동향분석. **시각장애연구**, 23(1), 1-22.]
- Park, J. H., Jeong, J. H. (2008). Analysis of the disability state of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4*(4), 43-61.
- [박중휘, 정지훈 (2008).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상황 실태 분석. **시각장애연구**, 24(4), 43-61.]
- Sahoko, O, Motoki, S., & Nobuo, H. (2016). History and modernity of education for the deaf-blind. *Yamanashi Bulletin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10*.
- [小野佐保子, 仙宅元記, 広瀬信雄 (2016). 盲ろう児教育の歴史と現代 - その開始と現代サービスの支援機器 -. **山梨障害児教育学研究紀要**, 10.]
- Suh, H. J., Ko, A. R., Lim, S. K. (2017). *A study on the needs and actual conditions of deaf-blind peopl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 [서해경, 고아라, 임수경 (2017).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욕구 및 실태 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World Federation of the Deafblind (2018). Global report 2018.  
<https://www.helenkeller.org/hknc>  
<http://www.re-deafblind.net/>  
<http://libguides.gallaudet.edu/content.php?pid=119476&sid=1029203>  
<http://www.sinnesbehindert.at/taubblindheit/>  
<https://nachrichten.idw-online.de/2019/01/09/taubblindenpaedagogik-deutschlandweit-erste-professur-eingerichtet/>  
<https://www.taubblindenwerk.de/>  
<http://www.jdba.or.jp/index.html>  
<https://www.nationaldb.org/>  
[http://www.tokyo-db.or.jp/?page\\_id=106](http://www.tokyo-db.or.jp/?page_id=106)  
<https://nachrichten.idw-online.de/>

<국문 초록>

##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

박 경 란

**[목적]** 이 연구는 일본 시청각장애학생 현황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 시청각장애 관련 정책 자료, 특별지원교육 관련 법령,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을 분석하고, 전국맹농인협회와 국립특별지원 교육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한 맹농인 실태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일본에서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시청각장애는 ‘맹농(盲聾)’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14,000명의 맹농인 중 학령기 학생은 555명으로 추정되며, ‘맹농’ 보다는 ‘약시난청’이나 ‘전맹난청’ 학생의 비율이 높고, 시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동반한 학생 비율이 높았다. 둘째, 일본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취학 시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를 발견하고 의료,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을 통한 연계 지원 체계를 강조한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령기 동안은 ‘개별교육지원계획’으로 전환되어 장애 영역별 특별지원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각장애학생의 배치에 있어서는 해당 학생의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원학교에 배치가 이루어진다. 셋째, 일본에서 맹농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 함께 ‘자립활동’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가 심한 맹농학생의 경우 ‘자립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립활동’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의사소통 수단의 선택·활용에 대한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맹농교육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서 매년 연수회를 실시하고 ‘전국맹농교육연구회’가 조성되어 맹농교육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각장애 진단평가, 교육배치,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리고 교사 전문성 함양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시청각장애, 시청각장애학생, 시청각장애교육, 일본

논문 접수(Received): 2021. 11. 08. / 심사 시작(Examined): 2021. 11. 08. / 게재 확정(Accepted): 2021. 12. 01.